



은행 (Positive)

9월 연체율: 개선의 조짐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2025년 9월 말 연체율은 0.51%(+6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을 고점으로 연체율의 YoY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분기 말입을 감안해도 많았던 연체 정리 규모가 영향을 미쳤겠으나, 신규 연체가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건전성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는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국내은행 9월 말 연체율 0.51%(+6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5년 9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1%(+6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81%(+13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65%(+4bp YoY)로 상승.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도 0.12%(+8bp YoY)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 가계 연체율은 0.39%(+3bp YoY)로 상승폭이 축소됨(지난 5~8월 +5bp). 신용 등 일반대출은 0.75%(+6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27%(+2bp YoY)로 모두 최근보다 낮아진 상승폭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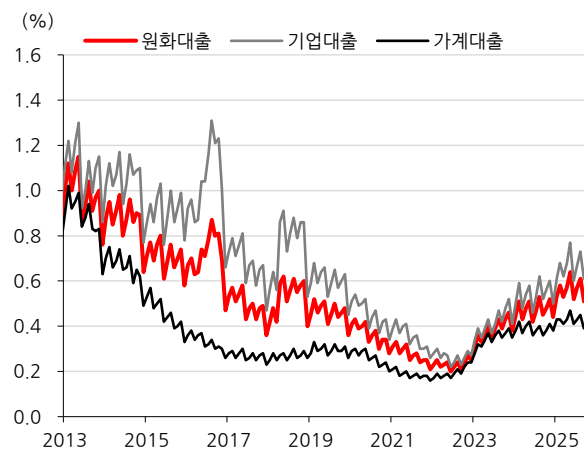
신규가 감소한 것도, 정리가 늘어난 것도 맞다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9월 말 12.5조원으로, 19% YoY 증가한 것으로 추산 (그림7)
- 9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는 2.5조원으로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자 전년 동월과 같은 규모를 기록 (그림9). 분기 말에 늘어나는 특성을 가진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규모는 4.8조원(+12% YoY)으로 증가 (그림10)
- 기업 (추정): 9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21% YoY로 추산. 자영업자의 연체잔액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하락한 것이 긍정적 (그림12)
- 가계 (추정): 9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2% YoY로 추산. 신용대 연체잔액 증가율은 세 달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하락하고, 주택대출의 증가율은 11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그림12)

개선의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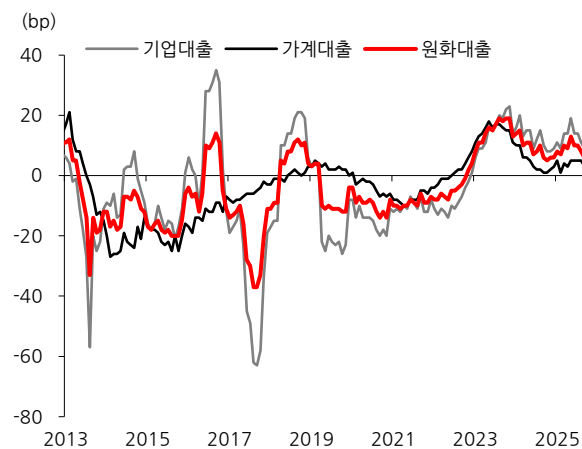
- 연체율은 여전히 전년 동월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5월을 고점으로 YoY 상승폭 축소와 MoM 개선을 이어가고 있음. 9월 중 연체 정리 규모가 분기 말인 점을 감안해도 많았기 때문에 상승폭 축소의 의미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은행업종의 대출 증가율이 3%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도 고려해야 함
- 그러나 월 중 신규 연체 규모가 세 달 연달아 전년 수준에 그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 가장 주요한 변수로 강조했던 중소기업(법인+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 상승 속도가 둔화 추세에 이른 점도 긍정적. 건전성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는 국면이라고 판단함
-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YoY)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는 내년으로 미루어 보아야 하겠으나, 그 시점을 멀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함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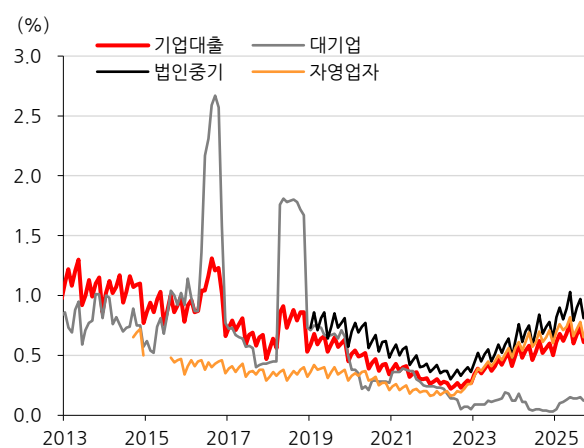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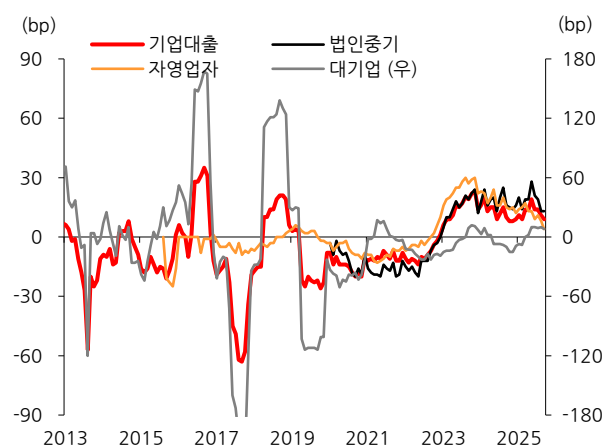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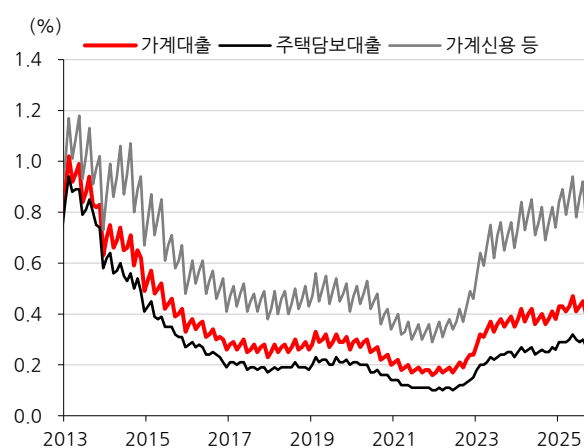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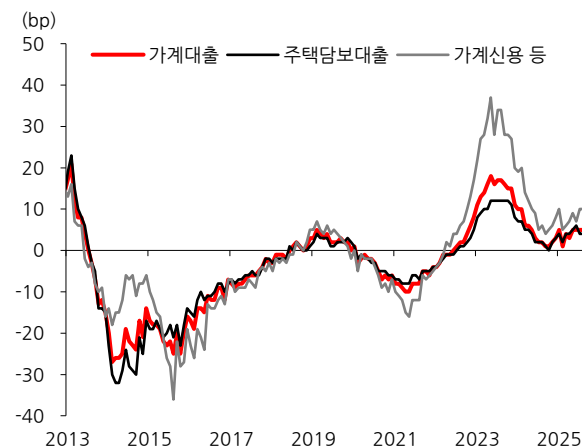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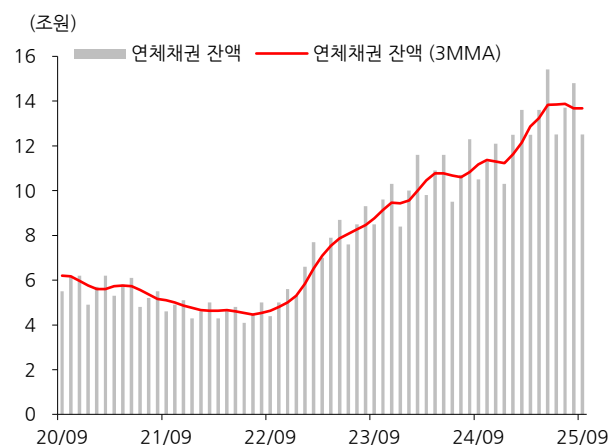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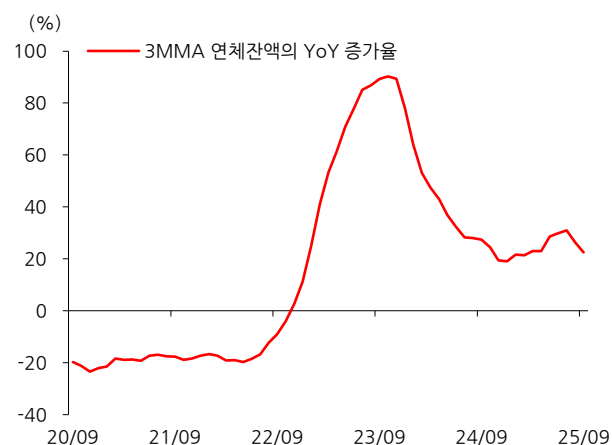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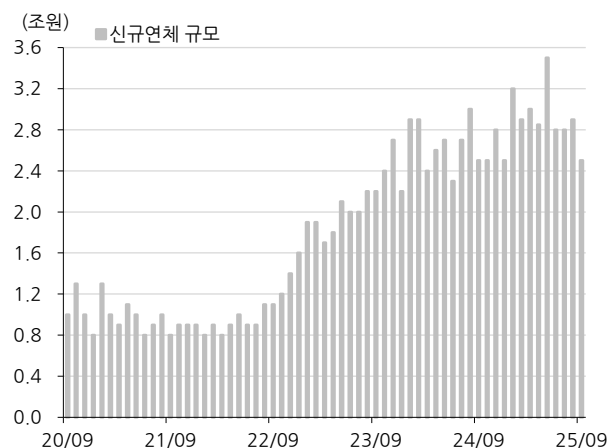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개월 이동평균 연체채권 잔액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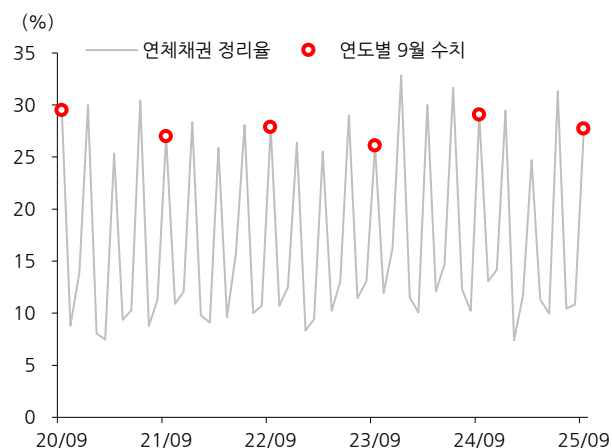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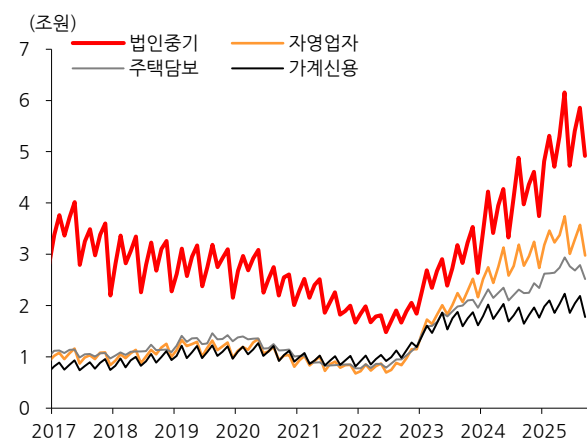
[그림10]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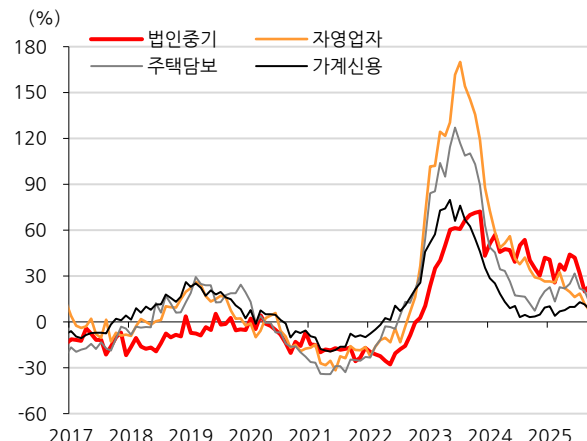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12월 01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9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2.9%	17.1%	0.0%	100.0%